

담배업계의 주장 VS 국내외 연구결과

담배업계의 주장

주장 하나,
가열담배는 일반담배보다 안전하고, 니코틴 외에 다른 유해성분은 없거나 낮음

주장 둘,
배출되는 연기는 '수증기(또는 에어로졸)'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음

주장 셋,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금연을 위한 중간 단계로 사용이 가능함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도움으로
금연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 보세요!

비밀지원처

금연두드림

nosmk.khealth.or.kr/nsk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go.kr

국내외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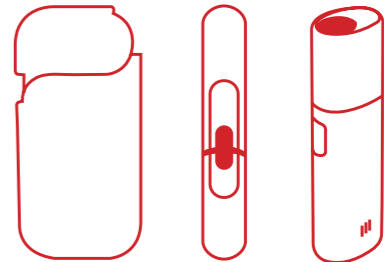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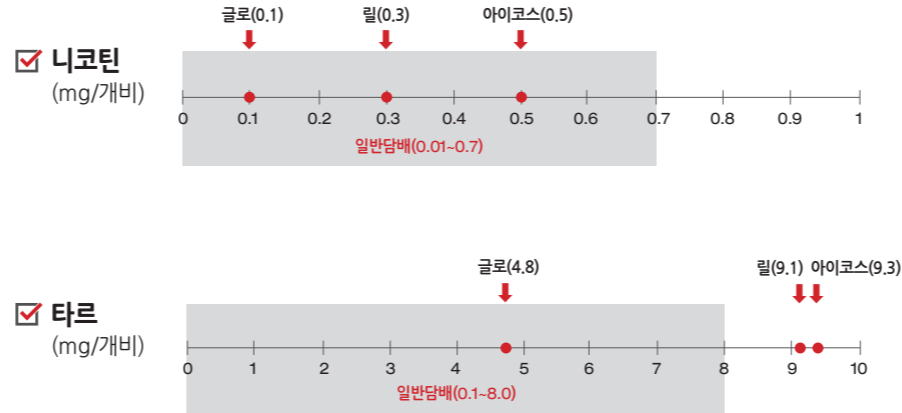
가열담배의 증기를 분석한 결과,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아세나프텐이 일반담배보다 3배 높게 나타남(Auer R et al, 2017; Bekki K et al, 2017; Farsalinos KE et al, 2017)

가열담배의 증기에 니코틴이 포함돼 있어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음을 밝힘(Japan Society for Tobacco Control,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 2016)

가열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음(식품의약품안전처,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유해성분 비교, 2018)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열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발표” (2018. 6. 7.)

- ☑ **니코틴 함유량** 가열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 **타르 함유량** 타르 함유량은 일반담배보다 더 높게 검출됨
- ☑ **발암물질 포함** 가열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



가열담배란?

배터리를 이용해 특수 가공된 담뱃잎을 가열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연기 혹은 에어로졸을 흡연 또는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

X **꺾어진** 관련형 전자담배 NO! **O** **가열담배가 맞습니다**

※ 꺾어진 전자담배라는 명칭은 국민들에게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할 소지가 있음.

가열담배, 간접흡연 위험! 있다?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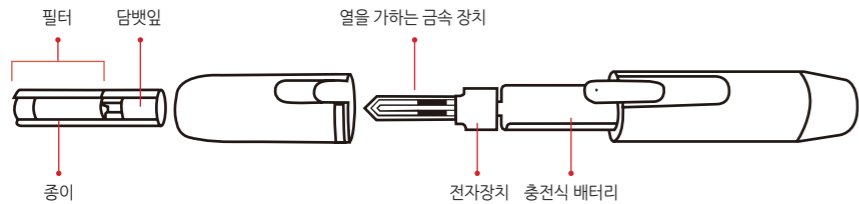
가열담배에도 암 유발 위험성 보여주는 '경고그림' 부착

2018년 12월, 가열담배의 유해성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기존의 전자담배에 부착되었던 경고그림을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을 경고하는 암병변 사진으로 교체

| 2018. 12. 23. 시행 |

☑ 제품 도면

- 특수하게 제작된 담뱃잎을 가열하는 방식을 이용함
- 일반담배는 섭씨 800~850도로 가열하는 반면, 가열담배는 섭씨 300~350도로 가열
- 더 낮은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됨



Q 가열담배! 간접흡연 위험 없다?

- 일부 연구에서 일반담배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이 가열담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위험 가능성도 제기함
-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가열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고 유해성분이 덜 배출되며,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힘

Q 가열담배도 담배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 금연구역에서 가열담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가열담배도 담배로 정의·구분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가열담배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

가열담배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및 '대한금연학회 입장문'



세계보건기구(WHO)

가열담배, 일반담배와 똑같이 규제해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가열담배를 일반담배 제품과 마찬가지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담배 자체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반 담배와 똑같이 유해하다고 발표함

KSRNT

대한금연학회 입장문

가열담배에 대한 입장문

- 가열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90% 더 안전하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가열담배는 배출물(연기 혹은 에어로졸)에 의한 간접 노출 위험이 없다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가열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함